

宋代筆記의 문체적 의미

- 序文에 드러난 작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안 예 선*

<목 차>

1. 들어가며
2. 필기의 범주와 유형
3. 송대 필기의 序文을 통해 본 작자의 의도
4. 송대 필기의 의미--私的 영역에서의 글쓰기
5. 맺으며

1. 들어가며

중국 문학에서 '筆記'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한다. 그것은 正史의 반열에 들지 못한 軼事·雜史·野史, 사대부들의 사교나 일화, 詩作에 얽힌 뒷담이나 詩文의 평론, 지리·자연·풍토·시정에 대한 기록이나 기행문, 학술적 고증 등을 자유롭게 기록한 雜記 식의 글쓰기 모두를 포괄한다. 즉, 문학과 비문학, 사실과 허구, 서사와 서정·의론을 넘나드는 다양각색의 내용을 총괄해서 '필기'라 하는 것이다.

북송 시대 宋祁가 진지한 저술의 의도가 아닌 임의대로 쓴 글들을 모아 '필기'라 명명한 이후, 『仇池筆記』·『芥隱筆記』·『蘆浦筆記』·『老學庵筆記』·『密齋筆記』등 '필기'를 제목으로 하는 저작들이 속출하였다. 따라서 宋代에 이미 '필기'라는 용어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문체로서의 의미는 아니었다. 언제부터 '필기'가 이러한 글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

* 鮮文大 中語中國學科 講師

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四庫總目提要』에서 종종 筆記之文, 筆記之流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말 청초 즈음 이미 '필기'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의 문체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통시기 文體에 대한 분류가 매 시대 있어왔지만 마지막 清代 曾國藩에 이르기까지 필기는 독립된 한 문체로 세워지지 않았다. 문체 분류는 文集에 수록되어 있는 文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필기는 문집 밖에 존재하는 叢殘小語인 '小說'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근래에 이르러서야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문체 분류를 시도한 연구자들이 '필기'에게 독립된 문체로서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¹⁾

지금까지 '필기'에 주목하는 경우는 주로 두 가지였다. 필기가 문언소설과 겹쳐지는 영역이 있기도 하고 명·청대 문언소설 중 唐·宋 필기에 그 고사의 연원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설연구의 입장에서 필기를 주목하거나, 혹은 正史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역사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한 사료로서의 가치에서였다.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각주로서의 역할 외에, 필기 문체 그 자체로서의 존재 의미는 없는가.

宋代는 '필기' 사의 흐름에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이때부터 필기 저작이 수적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작자의 태도 또한 이전 시대와 다른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²⁾ 우리가 알고 있는 송대 저명 문인들 대부분이 필기 저작 하나쯤은 남기고 있을 정도로 '필기'는 가장 유행했던 글쓰기 형식이었지만, 그런 성세에 비해 냉대 받아왔다. 전통 문인들의 문장 관념에서나, 오늘날 산문 연구의 영역에서나, 주로 정통 고문의 범주에 포함되는 文集 내의 문장, 즉 '文'을 중시하면서 문집 밖 또 다른 저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필기에 대해서는 천시해왔던 것이다. 필기가 '文'이 지향해야 할 '道'와는 거리가 먼, 소소하고 잡다

1) 謝楚發은 중국산문을 記敘文, 論辯文, 諷諭文, 實用文으로 구분하면서 기서문의 마지막에 '필기'체를 포함시켰다. 陳必祥은 15가지 문체로 분류하면서 네 번째에 '필기체 산문'의 항목을 두고 있고, 褚斌杰도 '필기문'을 하나의 문체로 명명하고 있다. 謝楚發, 『散文』(人民文學出版社, 1994), 陳必祥 著·沈慶吳 譯, 『한문문체론』(이희문화사, 1995),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概論』(北京大學出版社, 1992)참고.

2) 『四庫總目提要』의 子部·雜家類六·雜說之屬의 後序에 이르길, "생각을 따라 기록하며 분량의 다소에 구애받지 않고, 앞뒤의 순서를 구분 짓지 않으며, 기분이 내키는 대로 따라 쓰다보니 책이 된 것으로 송대부터 작자가 매우 많아졌다(大抵隨意錄載 不限卷帙之多寡, 不分次第之先後, 興之所至, 即可成編. 故自宋以來, 作者至夥)"고 하고 있다.

한 것들의 기록으로 심심풀이를 위한 '閑書'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文'의 '載道'성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어졌던 宋代에 필기와 같은 '閑書'류가 대거 출현하여 유행하고 인기를 끌었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단순히 한가한 시간에 급적거리 본 별 의미 없는, 토막토막의 메모 정도로 보고 지나쳐도 되는 것일까. 필기의 작가들은 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였을까. 그들은 필기라는 형식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했던 것일까. 송대의 필기는 전체 중국 문학사의 흐름 중에서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가질까.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文'과 '道'의 관계를 중심으로만 들여다보던 도식화된 송대 문인들의 글쓰기(作文)를 좀 더 다양하게, 융통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필기의 범주와 유형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필기'와 '필기소설'이라는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필기소설'이라는 용어가 한 장르용어를 지칭하게 된 것은 20년대 上海 進步書局에서 『筆記小說大觀』이 간행되면서부터인데 그 이후 필기소설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게 되었다. 물론 필기가 전통시기 목록학에서 소설류로 분류되던 것이긴 하지만, 필기소설이란 용어는 '필기'와 '소설'이란 두 개념을 병치시키면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筆記小說大觀』 중에는 필기의 형식이면서 소설성을 갖춘 『夷堅志』·『子不語』·『閑微草堂筆記』 같은 저작들이 포함되어있지만, 상당수는 소설성과는 거리가 먼 『大唐新語』·『國史補』·『東坡志林』·『容齋隨筆』 등의 작품들이다. 그 후 대만 新興書局에서 출판된 『筆記小說大觀』에는 잡기식의 필기 이외 志怪·傳記·詩話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다. 대륙에서 출판된 『歷代筆記小說大觀』도 문언으로 쓰인 일체의 志怪·傳奇·雜錄·瑣聞·傳記·隨筆류의 저작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³⁾ 이들

3) 『宋元筆記小說大觀』(上海古籍出版社, 2001) 출판설명 참조.

‘필기소설’은 사실에 충실한 것과 허구가 가미된 것, 문학적인 것과 비문학적인 것, 일정한 스토리를 지닌 것과 이야기성이 전혀 없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필기소설이란 개념은 확실히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이다.⁴⁾

몇 종의 ‘필기소설’에 대한 史的 연구저작들 또한 나름대로 그것의 개념정의를 시도하면서 “소위 필기소설이란 것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인물을 중심으로 하면서 비교적 스토리의 짜임새를 갖춘 필기작품을 가리킨다”며 필기소설이 갖추어야 할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歸田錄』이나 『東坡志林』·『老學庵筆記』 등 필기소설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⁵⁾

근래 필기소설이란 용어에 대한 회의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程毅中은 필기소설이란 개념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것이 志怪·傳奇·雜事 필기를 아우르고 있는 바에야 차라리 ‘文言小說’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다.⁶⁾ 陶敏 또한 필기가 ‘소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목록학상의 ‘소설’은 순문학적 관념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을 시기의 산물이므로 오늘날 ‘필기소설’이라는 어휘로 전체 필기를 아울러 개념상의 혼란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⁷⁾ 이들은 ‘필기소설’이란 용어 자체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는 입장이고, 劉葉秋나 褚斌杰은 小說故事類만을 ‘필기소설’로 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역사나 고증류, 수필류 필기는 다만 ‘필기’라고만 할 수 있지 ‘필기소설’이라고 칭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다.⁸⁾

‘필기소설’이라는 용어는 전체 필기를 아우를 수 없다. 허구적 요소와 고사성을 갖춘 것만을 비로소 ‘필기소설’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필기체(로 쓰여진) 소설’로서 필기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소설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그 외 소설적 요소와 상관없는 것들, 예를 들어 작자가 경험하거나 보고 들은 것을

4) 鄭振鐸 또한 『筆記小說大觀』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들이 너무 “마구잡이식(濫)”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 개념을 고사성으로 한계지어 『唐燕言』, 『歸田錄』 등은 이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中國小說的分類及其演化的趨勢」, 『鄭振鐸古典文學論文集』, 上海古籍出版社, 1984, 331쪽.

5) 吳禮權, 『中國筆記小說史』, 商務印書館, 1997.

6) 程毅中, 「漫談筆記小說及古代小說的分類」, 『古籍整理出版情況簡報』, 2003년제3기.

7) 陶敏·劉再華, 「筆記小說與筆記研究」, 『文學遺產』, 2003년제2기.

8)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概論』(北京大學出版社, 1992), 463쪽. 劉葉秋, 『歷代筆記概述』(北京出版社, 2003), 4-5쪽 참조.

사실에 충실하게 기록한 것이나 詩文評, 학술적 내용의 고증류, 일상의 단상과 감흥을 기록한 수필식의 글들은 다만 '필기'라고만 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연구영역이다.⁹⁾

그렇다면 어떤 저작들을 필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자. 대만에서 정리된 『筆記小說大觀』이나 최근의 『全宋筆記』에 수록된 필기의 범위는 經·史·子·集 四部の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어디까지를 필기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은 천차만별인데, 본 고에서는 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우선 필기는 斷片的 '條目'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매 조목마다 간단한 제목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목 없이 사건마다 생각나는 대로 한 조목씩 쓴 것으로¹⁰⁾ 이러한 필기의 형식은 일상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일들과 단상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필기는 고심한 저작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저작이 필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작자의 의도와 태도에 달려 있다. 別史나 雜史 등 史部類의 저작은 비록 조목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작자가 편하게 임의대로 쓴 글이 아닌, 진지한 고민이 배어있는 저작이다. 이들은 조정의 大事나 저명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신변의 소소한 소문에 관심을 갖거나 주관을 드러내는 필기와 다르다. 물론 송대 필기 중에서도 그것의 '역사에 대한 補史'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지만, 작자의 태도는 여전히 '閑談'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사고전서의 편찬관들도 조정과 軍國의 일을 위주로 한 것은 雜史류로 분류하여 소설류(필기)와 구분짓고 있다.¹¹⁾

셋째, 한 권의 필기는 관철된 주제나 중심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작자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서술하고 있다면 필기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송대 譜錄類

9) 李劍國은 "기실 필기와 필기소설, 지파, 전기 등의 문언소설은 서로 다른 계통이므로 함께 취급해서는 안된다. ……필기연구와 소설연구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다. (『文言小說的理論研究與基礎研究—關於文言小說研究的幾點看法』, 『文學遺產』, 1999년 제2기) 본 고는 소설의 영역에 속하는 필기소설을 제외한 나머지, 즉 산문 문체로서의 필기를 다루고자 한다.

10) 송대 필기의 서문에는 이러한 창작의 과정과 태도가 잘 언급되어있다. "隨事筆記(『嶺外代答』序)", "意之所之, 隨即紀錄, 因其先後, 無復詮次(『容齋隨筆』序)", "隨意而書(『野客叢書』序)"

11) 『四庫總目提要』子部·小說家類二·後序: "小說與雜史最易相淆, 諸家著錄, 亦往往牽混, 今以述朝政軍國者入雜史: 其參以里巷閑談詞章細故者, 則均隸此門."

저작은 작자의 태도나 형식면에서 필기와 유사하지만, 그것이 어떤 한 가지 소재에 대한 전문적 저작이라는 점에서 필기와는 구분된다. 초기의 詩話 저작은 詩와 관계된 일사를 다량 수록하고 있어 그 閑談적 성격상 필기에 근사하지만, 제목을 詩話라고 명명할 때는 중심이 詩가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구양수의 『歸田錄』과 『六一詩話』는 모두 시와 시인에 관한 일사를 수록하고 있지만, 『귀전록』은 시와 상관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육일시화』에 비해 시 자체의 내면적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화'라고 명명한 용의를 알 수 있다.¹²⁾ 다시 말해 필기와 시화에 비슷한 내용의 일사가 동시에 수록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총체적 입장에서 볼 때 필기와 시화를 대하는 작자의 지향점과 의식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¹³⁾

송대 필기는 그 내용에 따라 雜史軼事類, 學術雜考類, 隨筆雜語類로 나눌 수 있다.

雜史軼事類는 人事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필기다. 中唐 이후, 李肇의 『國史補』, 盧肇의 『逸史』, 林恩의 『補國史』, 高彥休의 『唐闕史』, 高若拙의 『後史補』 등처럼 '史'자로 제목을 내세우거나, '補史'로서의 가치를 표방하는 필기들이 다작된다.¹⁴⁾ 송대 또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역사류 필기가 다량 지어지는데 司馬光의 『涑水記聞』, 范鎮의 『東齋記事』, 宋放求의 『春明退朝錄』, 徐度的 『却掃編』, 王明清의 『揮麈錄』 등은 조정의 대사, 황제, 저명인들의 사건과 언행을 위주로 하며 작자는 사실의 기록과 전달을 위해 시종 객관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 한다. 그 외 국가 대사나 저명 인물들 위주가 아니라 작자가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 속에서 보고 들은 소소한 사건이나 언행들을 위주로 하며 작자의 태도 또한 엄격함보다는 여유롭고 가벼운, '閑書' 성격의 필기가 다작되는데 王闢之의 『澠水燕談

12) 興膳 宏는 「宋代詩話における歐陽修『六一詩話』の意義」에서 구양수의 『귀전록』과 『육일시화』를 비교하여 필기와 시화의 구분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汲古書院, 1998)

13) 초기의 詩話는 다른 필기들과 마찬가지로 소설류로 분류되었으나, 남송에 이르러 독립된 문헌 분류의 한 항목을 차지하게 된다. 남송 초 尤袤는 『遂初堂書目』에서 시화를 「文史類」로 구분하였고,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에서도 文史類를 세워 시화를 「文心雕龍」이나 「詩品」과 동류의 저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송인들이 시화를 여타의 필기와 구분하여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반영한다.

14) 李德裕, 『次柳氏舊聞』序: 懼失其傳, 不足以對大君之問, 謹錄如左, 以備史官之闕云.” 鄭棨, 『開天傳信記』序: “竊以國朝故事, 莫盛於開元、天寶之際, 服膺簡策, 管窺王業, 參於聞聽, 或有厥焉, 承平之盛, 不可損墜, 輒因簿領之暇, 搜求遺逸, 傳於必信.”

錄』, 歐陽修的『歸田錄』, 魏泰의『東軒筆錄』, 蔡條의『鐵圍山叢談』, 朱弁의『曲洧舊聞』 등이다. 진자가 그 기록이 사실에 충실한 '실록'임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후자는 문인들의 풍류와 정취, 해학적 일면을 보여주는 일상의 내용을 주로 한다. 王闢之는『澠水燕談錄』의 서문에서 훗날 이 책을 보면서 배를 치고 깔깔 웃으면서 낙담한 뜻을 달래고 여생을 보내려 할 따름이라고 했고, 歐陽修 또한『歸田錄』을 훗날 한가해질 때를 위해 준비해 두는 것이라고 했다.¹⁵⁾

中唐 이후 기존에 없던 고증적 성격의 필기가 출현했다. 그러나 당대에는 수적으로 많지도 않았고 그 내용도 名物에 대한 고증에 편중해있었으며 자자의 의론은 주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송대에는 문인들의 경제, 시간적인 여유와 박학을 추구하는 학문적 태도, 서적 출판물의 다량 출현 등으로 學術雜考類의 필기가 다작되었다. 張溥의『雲谷雜記』, 王觀國의『學林』, 洪邁의『容齋隨筆』, 王應麟의『困學紀聞』 등이 그러한데, 이들은 본래 학술적 저작을 짓겠다는 진지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독서 중의 느낌이나 의문 등을 그때그때 편하게 적어둔 것이다. 예를 들어 史繩祖의『學齋仿筆』은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고민을 해 보고 거기서 얻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스승과 벗들에게 자문해보고서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한 권의 책이 된 것이다.¹⁶⁾ 洪邁의『容齋隨筆』은 엄밀하다기보다는 생각과 뜻을 따라 즐기면서 쓴 글이다.¹⁷⁾ 이러한 독서노트로서의 학술잡고류 필기는 일상과 학문적 고민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이루어졌던 송대 문인들에게 적합한 형식이었다.

마지막은 수필잡기류로서 송대 필기의 전형을 대표하는 저작들이다. 송대 이전의 필기는 사람이나 사물, 사건을 기록할 때 모두 객관적으로 서술하며 주관적 의론이나 개인적 감상의 부분은 거의 없었는데, 송대 문인들은 필기를 통해 개인 일상생활의 閑情이나 雜感, 斷想, 산수를 유람하거나 문예생활에 대한 취미와 애

15) 『澠水燕談錄·序』: 蓄之中囊, 以爲南歛北窗, 倚杖鼓腹之資, 且用消阻志, 遣餘年耳. 『歸田錄·序』: 錄之以備閒居之覽.

16) 『學齋仿筆·序』: 凡讀書有疑, 隨即疏而思之, 遇有所得, 質之於師友而不謬也, 則隨而錄之, 積久成編.

17) 『容齋三筆·序』: 於寬閒寂寞之濱, 窮勞瘁時之暇, 時時捉筆據几, 隨所趣而志之, 雖無甚奇論, 然意到即就, 亦殊自喜.

호, 주변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관찰과 주관적 논평 등을 표현하였다. 蘇軾의 『東坡志林』, 葉夢得的 『避暑錄話』, 羅大經의 『鶴林玉露』, 倪思의 『經鉅堂雜志』¹⁸⁾, 許棐의 저작이라고 하는 『樵談』, 施清臣의 『几上語』·『枕上語』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개인성과 서정성이 농후한 필기들로 이후 만명의 淸言 소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⁹⁾

그러나 宋 이전의 필기가 한 권 저작의 성격이 비교적 명확했던 것에 비해, 송대 필기는 여러 유형이 함께 수록되어있어 갈래짓기가 애매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春渚紀聞』은一卷부터 五卷까지는 '雜記' 항목으로 대부분이 귀신이나 신선, 인과응보 고사 위주로 되어있지만, 뒷부분은 東坡事實, 詩詞事略, 雜書琴事附墨說·記硯·記丹藥 등의 내용으로 앞부분과 다른 성격의 글들이다. 『夢溪筆談』은 고증과 괴이한 고사들, 문인들의 일사와 학학적 내용, 작자의 의론 등 여러 유형들의 내용이 섞여있고, 『能改齋漫錄』은 일반적으로 고증류 필기로 분류되곤 하지만, 그 외에도 神仙鬼怪, 記事, 樂府 등의 부문에서 志怪나 문인 軼事의 유형들이 포함 되어 있다. 『雲錄漫鈔』는 "잡사를 기록한 것이 십분의 삼, 명물을 고증한 것이 십분의 칠"이라 했고,²⁰⁾ 『聞見後錄』은 "經義, 史論, 詩話를 겸하고 있고, 게다가 神怪, 해학적 내용이 뒤섞여있"으며,²¹⁾ 『高齋漫錄』은 "위로 조정의 전장에서부터 아래로는 사대부들의 사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문평, 시화, 해학, 조소 같은 것들을 보고 들은 바에 따라 다 기록"한 것이어서²²⁾ 어느 한 유형으로 갈래짓기가 어렵다. 이처럼 여러 유형이 한 필기 속에서 섞여 있는 것은, 필기라는 문체가 갖는 근본적 속성, 즉 잡스럽고(雜), 산만하며(散), 자질구래한(瑣) 점을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18) 陳弘緒, 『寒夜錄』卷下: 東坡『志林』, 景綸『玉露』, 『經鉅堂雜志』, 石林『避暑錄』, 隨意點染, 饒有風韻, 亦令讀者靡靡忘倦.

19) 『四庫總目提要』子部·雜家類存目一『經鉅堂雜志』提要: 明代陳繼儒一派, 發源於此. 『樵談』提要: 核其詞氣, 如出屠隆、陳繼儒一輩人口. 『几上語』, 『枕上語』提要: 明人小品濫觴於斯.

20) 『四庫總目提要』子部·雜家類五『雲錄漫鈔』提要: 書中記宋時雜事十之三, 考證名物者十之七.

21) 『四庫總目提要』子部·小說家類二『聞見後錄』提要: 書兼及經義、史論、詩話又參以神怪俳諧.

22) 『四庫總目提要』子部·小說家類二『高齋漫錄』提要: 上自朝廷典章, 下及士大夫事蹟, 以至文評、詩話、談諧、嘲笑之屬, 隨所見聞, 咸登記錄.

3. 송대 필기의 序文을 통해 본 작자의 의도

송대 필기 저작의 수적 증가와 내용적 변화는 그 창작 주체층의 변화와 연결 지어 설명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송대 문인들이 갖추고 있던 시대적, 환경적, 문화 소양적 요소들이다. 송대 과거문화를 공유하면서 생겨난 독서인 계층을 '사대부'라 지칭하는데, 바로 이 사대부들의 '한가로움(閑)'이 송대 필기의 내용과 형식을 일신하게 된다.²³⁾ 그렇다면 송대 사대부들은 왜 필기를 즐겨 썼으며,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문제를 본 고에서는 필기의 제목과 그 序文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전과는 달리 송대 필기는 대부분 燕談·燕錄·記聞·筆錄·筆記·筆談·雜記·雜識·雜志·野語·野錄·漫錄·漫鈔·叢談·瑣語 등의 용어를 씀으로써 자신의 저작이 '立言'을 위한 '大文'이 아니라, 쉬엄쉬엄 쓴 글, 잡동사니의 글, 주위 들은 것들을 마음대로 기록한 것임을 밝힌다. "잡스럽고 순차가 없으니 雜記라고 한다"²⁴⁾거나, "나는 태어나 시절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배운 것은 아둔하여 쓰일 만한 데가 없었다. 한가한 날 때때로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써 두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니 쌓여 책이 되었다. 고로 漫志라 이름하였다. 아,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돌아보니 쓸모가 있는 말들도 아니고, 또한 부득이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귀뚜라미가 가을을 만나 혼자 울었다가 혼자 그치는 것과 같으니, 식견이 있는

23) 송대 필기의 내용적 변화를 주도한 것이 사대부였다는 점은 예전부터 주목되었다. "(송대 사대부 들은) 물러나 한가롭게 지내면서 종종 조정의 옛 일들을 말하거나, 명현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언행을 기록하였다" 陳繼儒, 『陳眉公集』卷五「聞雁齋筆談序」: (宋之士大夫)家居退閑, 往往能稱說朝家故實, 及交游名賢之言行而藉記之. "송대(의 필기)는 사대부의 손에서 나왔으니 공무의 여가시간에 지은 것이 아니면 산림 아래서의 한담이다. 기록한 것은 모두 평상시 부형이나 벗들과 서로 얘기 나눈 것이거나 혹은 직접 겪은 견문이나 의문, 오류를 고정한 것들이니 한 마디 말과 웃음 속에서 선배들의 풍류를 생각하고 만나게 된다." 『宋人百家小說』, 桃源居士序: 唯宋則出土大夫手, 非公餘纂錄, 卽林下閑譚, 所述皆生平父兄師友, 相與談說, 或履歷見聞, 疑誤考證, 故一語一笑, 想見先輩風流.

24) 『雲谷雜記序』: 雜然無復詮次, 故目之曰雜記.

자는 이를 한심하다 비웃을 것이다!”²⁵⁾ 송대 필기의 작자들은 그것이 잡스럽고(雜), 아무렇게나 지껄인 것(漫)이며, 다듬어지지 않았고(野), 자질구레하다(瑣)는 것을 제목에서부터 못 박는다. 어떤 것들은 제목을 새롭게 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신의 저작을 평가절하 하는 식의 제목을 내건다. 車若水는 “각기병에 걸려 글을 쓰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기에 『脚氣集』이라고 제목을 붙”이라고 했고,²⁶⁾ 莊綽은 “나의 이 책이 이와 비슷하여 계록이라고 이름 하였다(予之此書, 殆類於是, 故以鷄肋名之)”며 자신의 저작을 취할 것도 그렇다고 차마 버리지도 못하는 계록에 비유하였다. 岳珂는 밖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집에 돌아와 탁자에다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들을 모아 책을 엮어 『탁자 위의 역사(棹史)』라고 하기도 했다.²⁷⁾ 물론 어느 정도 검사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작자의 심중에서 필기라는 글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어떤 생각과 자세로 임했는지를 반증한다.

전통문인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것이었고, 흥미나 오락과는 연관될 수 없는 것이었다. 소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교훈적이며, 역사의 보완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강조하였지, 드러내놓고 재미를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송대 필기에서 작자의 태도는 기존의 필기 작가들과 사뭇 다르다. 『夢溪筆談』의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물러나 산림에서 지내니, 사는 곳이 깊은 지라 왕래하며 지내는 이도 없었다. 이전에 객들과 얘기하던 것을 생각하며 때때로 붓으로 그 일을 기록하면 마치 더불어 얘기 나누는 듯 했다. 쓸쓸히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함께 말을 나누는 것이라고는 붓과 벼루뿐이었으니, 이를 ‘筆談’이라 하였다. 황실의 도모와 국가의 정사, 궁중과 관계된 일들은 모두 감히 사사로이 기록하지 않았다. 요즘 사대부들의 비방과 명예에 관한 것들은 비록 칭찬할 만한 것이라도 쓰고자 하지 않았으니, 다만 사람의 악을 말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닌 것이다. 기록한 것은 오직 산 사이 나무 그늘에서 마음대로 얘기하고 통쾌하게 웃을 만한 것으로 사람의 이해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다. 아래로는 거리의 말까지 하지

25) 『梁谿漫志·序』: 予生無益於時, 其學迂濶無所可用, 暇日時以所欲言者, 記之於紙, 歲月寢久, 積而成編, 因目以『漫志』. 嗟夫, 竟何謂哉! 顧非有用之言, 且非有所不得已, 譬之候蟲逢秋, 自吟自止, 識者當亦爲之歎笑耶!

26) 『四庫總目提要·子部·雜家類五』脚氣集』提要: 因病脚氣, 作書自娛, 故名曰『脚氣集』.

27) 『程史·序』(中華書局, 1997) 참조.

않은 것이 없다. 또한 돌아다니는 소문에서 얻은 것도 있으니 그 중에는 빠지고 잘못된 것이 없을 수 없다. 이러한 것으로 말을 삼으니 심히 비루하긴 하지만, 나는 말에 뜻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²⁸⁾

심괄은 국가의 정사나 선비들의 명예나 비방과 관계되는 것은 다루지 않았고, 오직 “마음대로 얘기하고 통쾌하게 웃을(率意談噓)” 수 있는 것만을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거리의 말이나 떠도는 소문까지 기록하였고, “그 중에 빠지고 잘못된 것(其間不能無缺謬)”이 있을 수도, “말이 매우 비루(言則甚卑)”할 수도 있었지만, 심괄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기록의 태도는 “일은 정교와 연관되어있고, 언어는 문장에 쓰인 말과 통한”다고 하거나, “글을 짓는 것으로 교화를 돕는다”²⁹⁾,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에 바탕을 둔다”³⁰⁾, “속담에 이르길 거리의 얘기와 골목의 의문도 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니, 시골 늙은이의 말도 성인은 가려 고른다”³¹⁾며 필기를 썼던 唐代 작가들의 의도나 자세와는 확연히 다르다. 周密의 『癸辛雜識』의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왔던 이들은 거의 야인과 별난 사람들이었는데, 거리낌 없이 얘기하며 재미있는 얘기를 잘했고, 취담이나 우스개 소리를 하면 꺼내지 않는 얘기가 없었다. 즐겁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경계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한 때의 웃음거리로 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고의 슬픔이 일기도 하였다. 의심스런 것이 실로 적지 않지만, 천백 중에서 한 둘을 구해 본다면 분명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한가한 날 그것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혹 홀로 밤에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지만 옛 친구들이 올 수 없다면, 책을 펴고 이 이야기들을 대한다면 평소 친구들과 박장대소하며 즐겁게 이야기 나누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에 스스로 탄식하며 말하길, “옳고 그름, 진실과 허망함을 분별하는 것이 어찌 오직 옹기만 하겠는가? 유사 이래로 버리고 취함에 어그러지지 않고, 호악을 사사로이 하지 않은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어그러지고 거짓된 것으로 세상을 속이는 자는 많다. 비록 한 때의

28) 沈括, 『夢溪筆談』: 退居林下, 深居絕過從, 思平日與客言者, 時紀一事於筆, 則若有所晤言, 蕭然移日, 所與談者, 唯筆硯而已, 謂之筆談, 聖謨國政, 及事近宮省, 皆不敢私紀, 至於繫當日士大夫毀譽者, 雖善亦不欲書, 非止不言人惡而已, 所錄唯山間木蔭, 率意談噓, 不繫人之利害者, 下至閭巷之言, 靡所不有, 亦有得於傳聞者, 其間不能無缺謬, 以之爲言則甚卑, 以予爲無意於言, 可也.

29) 『大唐新語』序: 事關政教, 言涉文詞, 『大唐新語』總論: 因文而輔教.

30) 『劉賓客嘉話錄』序: 大抵根於教誘.

31) 『雲谿友議』序: 諺云, 街談巷議, 條有裨於王化, 野老之言, 聖人採擇.

건문이라고는 하나 무심함에 바탕을 두고, 천년 이래의 상과 벌을 사사로운 뜻으로 맡겼 해 보려 한다.”³²⁾

주밀은 주로 野人과 기인들의 취담, 우스갯소리를 모아 책을 엮었다. 그리하여 훗날 “평소 친구들과 박장대소하며 즐겁게 이야기 나누던 것”처럼 그 책을 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며, 역사라는 것도 어차피 세상을 기만하는 것이라면 자신은 차라리 ‘무심함(無心)’과 ‘사사로운 뜻(私意)’으로 임하겠다고 한다. 주밀은 시비나 사실성보다는 ‘해학(諧)’과 ‘웃음(笑)’, 자신만의 개인적인 가치판단에 비중을 두고 필기를 썼다.

이 외 여타 서문에서도 필기를 쓰는 것이 즐거움(喜, 樂, 娛, 戲)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박택옹 붓끝의 유희 삼매일 따름이다.³³⁾

촌부와 시골 늙은이에게까지 이르러 그들과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말을 나누면서 때로 손뼉을 치며 한바탕 웃었다.³⁴⁾

한적하고 고요한 물가에서 좋은 경치를 다 구경하면서 시간을 즐기고 남은 거름에, 때때로 붓을 잡고 책상에 기대어 뜻이 가는 바를 따라서 그것을 쓴다. 비록 아주 뛰어난 말은 없더라도 뜻이 이르면 바로 썼으니, 또한 스스로 즐기는 것이다.³⁵⁾

『容齋隨筆』과 『夷堅志』는 모두 아버님께서 평소 재미삼아 쓰신 것들이다.³⁶⁾

내가 산 속에 은거하면서 함께 마주 대하고 이야기 할 이가 없어 기억나는 바가 있으면 그 때마다 종이에 그것을 기탁하였다. 어지럽고 번잡하며 비록 해학적이고 비속한 말까지도 쓰지 않은 것이 없지만, 지극한 말과 요묘한 도리도 그 사이에 있다. 후에 그것을 읽어보면 흔연히 평상시 친구들을 만나 박장대소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듯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寓簡』이라 이름하였으니, 스스

32) 周密, 『癸辛雜識·序』: 余臥病荒間, 來者率野人畸士, 放言諧謔, 齷齪笑話, 靡所不有, 可喜可懼, 以警以戒, 或獻一時之笑, 或起千古之悲, 其見於世固不少, 然求一二於千百, 當亦有之, 暇日萃之成編, 其或獨夜遐想, 舊朋不來, 展卷對之, 何異平生之友相與抵掌劇談哉! 因竊自歎曰: “是非真誕之辨, 豈惟是哉? 信史以來, 去取不謬, 好惡不私者幾人, 而舛偽欺世者總總也, 雖然一時之聞見, 本於無心, 千載之子奪, 狃於私意.”

33) 『泊宅編·序』: 此翁筆端游戲三昧耳.

34) 『石林燕語·序』: 下至田夫野老之言, 與夫滑稽諧謔之辭, 時以抵掌一笑.

35) 『容齋三筆·序』: 於寬閑寂寞之濱, 翫勝樂時之暇, 時時捉筆據几, 隨所趣而志之, 雖無甚奇論, 然意到即就, 亦殊自喜.

36) 『容齋四筆·序』: 『隨筆』, 『夷堅』, 皆大人素所游戲.

로 즐기려는 것이다.³⁷⁾

갑히 보고들은 것이 많음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즐겁고자 할 따름이다.³⁸⁾

문인들이 필기를 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스스로 즐겁기 때문이다. 박학을 드러내고 교훈을 운운하는 것은 상투적으로 덧붙여지는 말일 것이다.³⁹⁾ 그러므로 그 속에는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킬만한 애깃거리들, 혹은 일상 속에서 접하는 주변의 사물, 사소한 감상이나 발상을 담백하게 기록한 것들로 가득하다. 특히 사교와 농담에 능했던 송대 문인들은 갖가지 모임이나 詩會, 연회에서 문자 유희를 즐겼는데,⁴⁰⁾ 수수께끼 글자 맞추기(字謎), 同音異義, 破字, 破經 등을 이용한 말장난 유머가 송대 필기부터 다량 등장한다. 이 외에도 문인들 사이 언행, 말버릇, 생김새 등에 대한 악의 없는 조롱, 해학 넘치는 재담, 우스꽝스런 해프닝 등의 내용이 필기를 읽게 하는 큰 재미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희나 심심풀이를 위한 '소설'을 쓴다는 것에 대해 문인들은 어느 정도 타인들의 비방을 예상했던 듯 하다. 필기의 서문 중에는 주객 문답식을 가설한 형식이 많은데 歐陽修의 『歸田錄』, 秦觀의 『逆旅集』, 岳珂의 『程史』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서문에는 작자인 主와 소설을 쓰는 것은 본분에 어긋난다며 그를 힐난하는 객이 등장한다.

한가롭게 지내면서 들은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그것을 기록하였다. 두루마리에 가득 차자 약간 권으로 만들어 『逆旅集』이라 하였다. ……혹자가 말하길, “군자는 순정한 일을 말하고, 순정한 이치를 쓰며 일상적인 것을 기록하는 것을 상세히 하고, 기이한 것을 기록하는 것은 간략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대가 모은 것은 비록 선왕이 남긴 말과 주공, 공자의 유언이 있지만, 부처와 노자, 점술과 의술, 꿈, 환상, 신선과 귀신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뒤섞여 있어 옳고 그름이 분간되지 않고, 믿을 만한 것과 허망한 것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일상적인 것은 상세하지 않고, 기이한 것은 간략하지 않습니다. 소위 군자가 쓰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웃으며 말하길, “새는

37) 沈作喆, 『寓簡·序』: 子屏居山中, 無與晤語, 有所記憶, 輒寓諸簡牘, 紛綸叢脞, 雖涉諧俚語, 無所不有, 而至言妙道, 間有存焉. 已而誦言之, 則欣然如見平生故人, 抵掌劇談, 一笑相樂也. 因名之曰『寓簡』, 聊以自娛.

38) 姚寬, 『西溪叢語·序』: 不敏誇於多聞, 聊以自怡而已.

39) 陳平原, 『中國散文小說史』, 上海人民出版社, 2004년, 243쪽.

40) 莊綽, 『鷓鴣編』卷上: 酒席之間, 亦專以文字爲戲.

거처를 정함에 산림을 가리지 않으니, 나무이기만 하면 될 뿐이다. 물고기는 헤엄치면서 강과 호수를 가리지 않으니, 물이면 그만이다. 일을 헤아려 처리하고 대상을 가려 말하면서 아는 체 하며 저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는 자는 고관선생들의 일이다. 나는 야인이니, 쓸모 없음을 스승삼고, 게으름은 습관이 된지라 올려다봐도 고아한 말이 좋은지 모르겠고, 내려다봐도 속론이 비루한지를 모르겠다. 우연히 들은 것이 생기면 따라서 그것을 적어둘 뿐이지, 어찌 순정하고 박잡한 것을 알겠는가?⁴¹⁾

『逆旅集』은 蘇門 四學士의 한 사람인 진관의 필기로 이미 실전되고 그 서문만 남아있다. 서문의 내용으로 볼 때, 괴이한 것만을 모은 지괴집은 아니고 평상시 들은 것들을 기록한 것으로 그 중에 간간히 기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다. 때문에 혹자는 진관이 “순정한 일을 말하고, 순정한 이치를 쓰며 일상적인 것을 기록하는 것을 상세히 하고, 기이한 것을 기록하는 것은 간략히 해야 하는” 군자의 도를 실천하지 않고 『逆旅集』 같은 소설을 엮은 것을 따지고 든다. 이에 대해 진관은 고아한 것이 좋은 줄도, 속된 것이 비루한 줄도 모르겠다며 내용의 순정함이나 박잡함에 상관하지 않고 옳고 그름이나 진실과 거짓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기이한 것들이나 향간에 떠도는 속된 이야기, 세간의 소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재미와 흥미를 쫓는 고문가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글을 재미로 삼는(以文爲戲)’는 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문가의 원조인 한유에게서 보인다. 쇠미해진 道의 진작을 위해 문장을 써야 하는 고문가가 『毛穎傳』과 같은 골계풍의 글을 지은 것은 문단의 일대 화재거리가 되었고 의론을 야기시켰다. 한유의 벗들은 『毛穎傳』과 같은 “내용 없는 잡스런 이야기(無實駁雜之說)”는 “도를 밝히(明道)”는 고문가의 사명에는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난했으나 한유는 이런 주위의 비판에 대해 “장난삼아 지어본 것일 뿐(此吾所以爲戲耳)”이라는 당황스

41) 秦觀, 『淮海集箋注』卷第三十九「逆旅集序」: 余閑居有所聞, 輒書記之, 既盈編軸, 因次爲若干卷, 題曰逆旅集。……或曰, 「吾聞君子言欲純事, 書欲純理, 詳於誌常而略於紀異。今子所集, 雖有先王之餘論, 周孔之遺言; 而爭屠老子、卜醫夢幻、神仙鬼物之說猥雜於其間, 是亦莫之分也。信誕莫之質也, 常者不加詳, 而異者不可略也。無酒與所謂君子之書言者異乎?」余笑之曰, 「烏棲不擇山林, 唯其木而已; 魚游不擇江湖, 唯其水而已。彼計事而處, 簡物而言, 竊竊然去彼取此者, 縉紳先生之事也。僕, 野人也, 擁腫是師, 懈怠是習, 仰不知雅言之可愛, 俯不知俗論之可卑。偶有所聞, 則隨而記之耳, 又安知其純與駁也?」(上海古籍出版社, 2000)

런 말로 일축해 버린다.⁴²⁾ 그리고 유종원은 “세상의 기이한 것까지 다 맛보고서야 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문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말하며 “유희를 하는 소이(所以爲戲)”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한유와 유종원은 “글로써 재미를 삼는다(以文爲戲)”는 가능성을 제시하긴 했지만 문단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긍정한 재미라는 것도 “성인이 버리지 않았(非聖人之所棄)”기 때문이며, “세상에 유익함이 있(有益於世)”는 한도 내에서의 것이었다.⁴³⁾ 재미있는 글(이야기)을 좋아할 수는 있었지만, “유가를 침해하지 않는(無侵於儒)” 수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⁴⁴⁾

반면 송대 문인들은 글쓰기를 통해 재미를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 그리 완강한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겼다. 구양수가 한유의 시를 좋아한 것은 그것이 재미있고 해학적이기 때문이었고⁴⁵⁾ 그 자신 또한 시를 쓰면서 기괴하고 해학적인 것을 섞어 쓰곤 했다.⁴⁶⁾ 필기는 송대 문인들의 이러한 ‘以文爲戲’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그들은 “사대부가 소설을 쓰고 듣고 본 것을 기록하는 것은 본디 재미삼아 하는 것(士大夫作小說, 雜記所聞見, 本以爲遊戲)”이라고 생각했다.⁴⁷⁾ 송대 필기가 이전의 필기들과 구분되는 점은 바로 작자가 필기라는 문체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임하는 태도가 재미와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4. 송대 필기의 의미—私的 영역에서의 글쓰기

송대 문인에게 필기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教化나 王化 같은 공용의 목

42) 韓愈, 「答張籍書」: 吾子又譏吾與人爲無實駁雜之說, 此吾所以爲戲耳.

43) 柳宗元, 『柳宗元集』卷二十一「讀韓愈所著『毛穎傳』後題」(中華書局, 2000), 569-571쪽 참조.

44) 段成式, 『酉陽雜俎·序』.

45) 歐陽修, 『六一詩話』: “其資談笑, 助諧謔, 敘人情, 狀物態, 一寓於詩, 而曲盡其妙.”(『歷代詩話』上冊, 中華書局, 2001, 272쪽)

46) 歐陽修, 『歐陽修全集』卷四十一「禮部御和詩序」: 時發於奇怪, 雜以詼嘲笑謔.

47) 葉夢得, 『避暑錄話』卷上.

적 보다는 여유와 한가로움에서 생겨난 무료함을 달래고 재미를 느끼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류적이고 공인된 전통과 시각보다는 자신의 뜻과 정취를 쫓아 쓴 글이었다.48) 이는 필기가 궁적 목적을 벗어난, 사적 영역에서의 글쓰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객관적 사실만을 기록하고 전달하던 필기가 작자 자신의 감상과 주관을 드러낼 수 있는 場이 된 것이다.

송 이전의 필기에서 작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작자가 가끔 자신의 논평이나 생각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주로 교훈이나 경계를 덧붙일 때에 국한되거나, 혹은 건문의 출처를 밝힐 경우 ‘某人이 말하길’, ‘某人이 내게 얘기해 준 것이다’라는 식의 언급으로 잠깐 표면에 드러날 뿐이었다. 따라서 독자들은 필기를 읽을 때 작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다만 그가 수집해 놓은 인물이나 사건을 볼 뿐이다. 결국 송 이전의 필기에서 작자는 ‘그대로를 서술하되 짓지는 않는(述而不作)’ 전통을 준수하면서 충실히 사실(이라 믿는 것)을 전달하는 입장일 뿐이었고 자신의 생각이나 내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송대 필기에서는 자신의 생활경험과 관심사항을 주된 소재로 삼고 있어 작자의 목소리가 분명히 드러난다. 羅大經의 『鶴林玉露』 중 한 단락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 집은 깊은 산 속에 있다. 매 해의 봄과 여름의 사이가 되면 푸른 이끼가 계단에 가득하고, 떨어진 꽃들이 길을 채운다. 손님이 문 두드리는 일 없고, 소나무 그림자는 들쭉날쭉, 새 소리가 위 아래로 울려 퍼진다. 낮잠을 실컷 자고 나서는 샘물을 길어다가 소나무 가지를 주워 쓴 차를 달여 마신다. 마음대로 『周易』, 『國風』, 『左氏傳』, 『離騷』, 『太史公書』와 도명명, 두보의 시, 한유와 소식의 문장 수편을 읽는다. 느릿느릿 산길을 거닐면서 소나무, 대나무를 스쳐보고, 짙은 산림 풍성한 풀밭 사이에서 사슴새끼, 송아지와 함께 드러누워 쉬기도 한다. 흐르는 샘물 곁에 쪼그리고 앉아 장난을 쳐보기도 하고, 이빨을 행구고 밭도 쟀는다. 돌아와 대나무 창 아래에 있으면 산아낙과 어린 아들이 죽순과 고사리로 반찬을 마련해 두니, 보리밥과 함께 거뜬한 한 끼 배불리 먹어치운다. 창문가에서 붓질을 하며 마음 내키는 대로 수십 글자를 굵적거리 보기도하고, 소장하고 있는 서첩이나 묵적, 그림 두루마리 등을 펼쳐 두루 감상한다. 흥이 이르면 小詩를 읊기도 하고, 『鶴林玉露』 한 두 단락을 쓰기도 한다. 또 쓴 차 한 잔을 우려 마시고 나가 시냇가를 산보하다가 동산의 늪은이와 계곡가의 벗들을 만나 배 짜는 일을 묻고 농사일을 얘기하며 개인 날과 비 올 날을 헤아려보고 절기를 따져보

48) 蘇軾, 『東坡志林·序』: “自適其適”, 周密, 『癸辛雜識·序』: “狃於私意”

면서 서로 한바탕 신나게 얘기 나눈다. 돌아와 지팡이를 짚고서 사립문 아래에 있으면 지는 해가 산에 걸쳐있고 자주 빛과 푸른 빛의 만가지 형상이 순식간에 변환하는 게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한다. 소 등에 앉은 (목동의) 피리소리가 둘씩 짝을 지어 돌아오고 달은 앞 시냇물에 속에 찍힌 듯 비쳐 있다.⁴⁹⁾

위 인용문은 작자가 자신의 일상을 생각의 흐름에 따라 담백한 언어로 자연스럽게 기술하고 있다. 본래 필기라는 것이 인물이나 사건·사물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치중하면서 의논이나 서정적 요소는 거의 없는 것이지만,⁵⁰⁾ 송대 문인은 필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로 자신의 일상과 정취, 사소한 의견과 단상을 표현하였다. 그들은 사회의 지식인으로서의 규범과 원칙에 충실했지만 일상에서는 이전 시대에 비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하고 풍성한 여가 생활, 문예, 취미활동을 즐겼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화적 경험과 욕구,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과 필요가 생겨났다. 그러나 일반 고문은 이러한 사적 일상을 표현하기에 한계와 규제가 많았으므로 적합한 형식을 모색하게 되는데, 필기가 이에 적합한 문체였던 것이다. 그 속에서 독서의 과정이나 일상의 경험에서 체득한 단상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자신이 느낀 世事에 대한 감회와 인정에 대해 쓰기도 하고, 書畫, 彈琴 등 技藝에 대한 관심, 주변의 사소한 사물들과 그에 대한 관심, 사색을 서술할 수 있었다.

또한 사적인 영역의 글쓰기였기에 가능했던 것은 작자 자신이 생각하는 '사실'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촉의 대도 李順이 劍南과 兩川 지방을 점령하고 관서지방을 진동케 하여 조정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후에 조정의 군대가 도적을 무찌르고 李順을 효수하였고, 양천지방을 수복하고, 논공행상까지 확실히 해서 다른 말이 없었다. 景祐년간에 이르러 어떤 사람이 李順이

49) 羅大經, 『鶴林玉露』丙編卷四「山靜日長」: 余家深山之中, 每春夏之交, 蒼蘚盈階, 落花滿徑, 門無剝啄, 松影參差, 禽聲上下, 午睡初足, 旋汲山泉, 拾松枝, 煮茗碾之, 隨意讀『周易』、『國風』、『左氏傳』、『離騷』、『太史公書』及陶杜詩、韓蘇文數篇, 從容步山徑, 撫松竹, 與麕犢共偃息於長林豐草間, 坐弄流泉, 漱齒濯足, 既歸竹窗下, 則山妻稚子, 作筍蕨, 供麥飯, 欣然一飽, 弄筆窗間, 隨大小作數十字, 展所藏法帖、墨蹟、畫卷縱觀之, 興到則吟小詩, 或草『玉露』一兩段, 再烹茗一杯, 出步溪邊, 邂逅園翁溪友, 問桑麻, 說秔稻, 量晴校雨, 探節數時, 相與劇談一餉, 歸而倚杖柴門之下, 則夕陽在山, 紫綠萬狀, 變幻頃刻, 恍可人目, 牛背笛聲, 兩兩來歸, 而月印前溪矣.

50) 呂叔湘은 “필기문은 사람을 기록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기록하는, 모두 객관적 서술을 한다. 의론의 글은 수필의 정식(正軌)이 아니며, 감회를 서술하는 것도 많지 않다”고 했다. 呂叔湘選註, 『筆記文選讀』(古典文學出版社, 1957), 37쪽.

여전히 광주에 있다고 고발했고, 순검사신 陳文璉이 그를 체포하니 바로 진짜 이순이었다. 나이는 이미 칠십이 넘었으나 추문하여 검증해보니 분명하였고, 수도로 압송하여 다시 조사해보니 모두 사실이었다. 조정은 촉을 평정한 장군과 병사들의 논공행상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서 그 일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아 다만 李順을 참수하고 陳文璉에게 두 직급을 올려주었다.……이순이 처음 필기해서는 마을의 부자와 큰 가문의 사람들을 모두 불러 그들로 하여금 그 집의 모든 재산과 곡식을 그 해에 쌀 만큼만 남겨두고 그 외에는 모두 거두어다 풀어 굶핍한 자들을 진휼하였고, 재능 있는 자들을 등용하고 선량한 자들을 잘 안무하였으며 호령이 엄정하였으니 이르는 곳마다 한 사람도 범하는 자가 없었다. 당시 양 蜀 땅에 대 기근이 들었었는데 열흘 사이에 그에게로 귀순한 자들이 수만인 이었다. 향하는 곳의 주현들은 문을 열고 맞아들였으며 격문을 돌려 이르는 곳에서는 다시 영루를 완고히 지키지 않았다. (이순이) 패하게 되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그리워하였으니 고로 이순이 달아나 30여 년을 있다가 이내 비로소 처형되게 된 것이다.⁵¹⁾

이순의 반란은 송 태종 때, 조정의 골칫거리가 되었던 사건이다. 당시 반란을 진압하고 논공행상을 한 후 사건이 일단락 지어졌으나, 30여 년이 지난 인종 때 비로소 진짜 이순이 체포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조정에서는 다 마무리지어진 “그 일을 거론하기 꺼려(不欲暴其事)” 조용히 넘기는 식으로 처리했다. 공식적이고 역사적인 결론에 대해 심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의 배후를 적어두고 있다. 게다가 덧붙여 이순이 삼십여 년간 숨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사실 이순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얻어냈으며 실패한 후에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그리워했다(人尙懷之)”고 한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적인 정사에서 이민족이나 반란세력의 동기가 최후를 악하고 무지한 세력으로만 묘사하는 점을 생각해볼 때, 그리고 심판 자신이 宋의 문인임을 생각한다면 ‘필기’라는 영역이 공인된 담론이나 사실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인지를 보여준다. 邵博은 『邵氏聞見後錄』에서 『唐史』에서는 黃巢가 체포되어 죽었다고 했는데, 늙은이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황소는 어느 절간으로 달아났으며 정사의 기록이 ‘거짓(僞)’이라고 말하

51) 沈括, 『夢溪筆談』卷二十五「雜誌」二: 蜀中劇賊李順, 陷劍南、兩川, 關右震動, 朝廷以爲優, 後王師破賊, 梟李順, 收復兩川, 書功行賞, 了無間言. 至景祐中, 有人告李順尚在廣州, 巡檢使臣陳文璉捕得之, 乃眞李順也. 年已七十餘, 推驗明白, 囚赴闕, 覆按皆實. 朝廷以平蜀將士功賞已行, 不欲暴其事, 但斬順, 賞文璉二官. …… 順初起, 悉召鄉里富人大姓, 令具其家所有財粟, 據其生齒足用之外, 一切調發, 大賑貧乏, 錄用材能, 存撫良善, 號令嚴明, 所至一無所犯. 時兩蜀大饑, 旬日之間, 歸之者數萬人. 所向州縣, 開門延納. 傳檄所至, 無復完壘. 及敗, 人尙懷之, 故順得脫去三十餘年乃始就戮. (上海書店出版社, 2003년, 214-215쪽)

기도 한다.⁵²⁾ 필기의 서술 중에 正史와 다른 기록들은 어느 것이 사실이나 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순이나 황소가 정사 이외의 기록처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당시 떠돌았던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혹은 민심의 바람이 그런 소문을 만들어 낸 것일 수도 있다. 사실의 여부는 차치하고 이러한 내용은 필기가 공인된 주류의 역사와 달리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장이었음을 보여준다.

正史는 관방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체제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회피하고 금기 시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적인 서술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고려될 필요가 없으므로 여과없이 기록된다. 송대 문인들이 자신들의 필기를 공개하기 꺼려했던 점 또한 그러한 이유에서다. “본조(송대)의 소설은 더욱 적으니, 사대부들은 만약 사가의 기록이 있어도 대부분 그것을 쉽게 내 놓으려 하지 않는다.……구양수의 『歸田錄』이 초고가 완성되고 아직 나돌지 않았는데 그 서가 먼저 전해졌다. 신중이 그것을 보고는 급히 중사에게 명하여 가져오도록 하였다. 당시 공은 이미 퇴임하여 영주에 있었는데, 그 책 속에 기술한 것 중에 널리 퍼뜨리지 않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 그러한 것들을 다 삭제하였다”⁵³⁾ 소식 『東坡志林』의 모태가 된 『手澤』 또한 소식이 평상시에 공개하지 않고자 했던 것들을 써 모은 자루 속의 원고들로써 살아생전에는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⁵⁴⁾ 송 조정은 이러한 사적 역사 편찬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렸었다.⁵⁵⁾ 이러한 조치는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효과를 거두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문인들의 개인적 역사 서술을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송대 정사들의 잦은 重修와 改編은 그것에 대한 불신을 갖게 했고 문인들이 사적 영역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을

52) 邵博. 『邵氏聞見後錄』卷十七: 唐史中和四年六月, 時溥以黃巢首上行在者, 僞也. 東西二都舊老相傳. 黃巢實不死. 其爲高讓所急, 陷太山狼虎谷, 乃自斃爲僧, 得脫. 往投河南尹張全義, 故巢黨也. (中華書局, 1997, 135쪽)

53) 王明清. 『揮塵錄』後錄卷一: 本朝小說尤少. 士夫縱有私家所記, 多不肯輕出之.……歐陽公『歸田錄』初成未出, 而序先傳, 神宗見之, 遽命中使宣取, 時公已致仕在潁川, 以其間所記述有未欲廣者, 因盡刪去之.

54) 黃庭堅. 『跋東坡敘英皇事帖』: 手澤袋蓋二十餘, 皆平生作字, 語意類小人不欲聞者, 輒付諸郎入袋中, 死而後可出示人者也.

55) 남송시대 紹興 14년(1144), 紹興 15년(1145), 紹興 20년(1150), 嘉泰 2년(1202), 네 차례의 사적 역사편찬 금지령이 내려졌었다.

기록으로 남기는 계기가 되었다. 王禹偁은 『建隆遺事』를 통해 국사와 대비하여 자신이 직접 목도한 것을 기록하였고,⁵⁶⁾ 周密은 『齊東野語』를 쓰면서 “국사는 여러 번 고쳐지고, 옳고 그름도 여러 번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의 기록은 없앨 수 없다”며 재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기록이야말로 역사의 진실에 더욱 가까운 것이라 했다.⁵⁷⁾ 관방의 정사와 개인적 역사 기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사실에 근접하느냐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작자가 필기라는 글쓰기를 통해서 개인의 입장과 관점으로 역사를 재단하고 기술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때로는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학문적 당파의 색채를 띠게 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그것이 사적 영역의 글쓰기라는 점에서 연유된 것이다.⁵⁸⁾

송대를 唐代와 비교해보면 作文과 역사 서술의 원칙은 더욱 강조되었던 반면, 현실 세계와 표현에 대한 욕구는 훨씬 다원적이게 되었다. 송대 문인들은 한편으로는 필요에 의해 또 한편으로는 반동적 심리로 인해 公의이고 規範적 文과 역사 외로 사적인 생활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체재를 탐색하였고 ‘필기’가 그런 요구에 부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私的인 영역에서의 글쓰기—이것이 ‘필기’가 가질 수 있었던 의미라 본다.

5. 맺으며

송대 문인들이 ‘公’과 ‘用’과 ‘載道’을 위한 글쓰기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

56) 『邵氏聞見錄』卷七：(王禹偁)咸平初，修『太祖實錄』，與宰相論不合，又以謗譏知黃州，移蘄州，死於官。其平生大節如此，故所著『建隆遺事』，一曰『箇中記』，自敘甚秘。蓋曰：“吾太祖皇帝諸生也，一代之事皆目所見者，考於國史或有不同。”

57) 『齊東野語·序』：國史凡幾修，是非凡幾易，而吾家乘不可刪也

58) 송대 필기에 대한 사고전서 편수관들의 제요를 보면, 필기 작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新·舊黨), 학문 연원(洛黨, 蜀黨, 朔黨), 혈연·교유 관계 등으로 인해 사적 감정에 치우쳐 그 기록이 공정치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편으로는 '私'와 '無用', '遊藝'적 글을 즐겼던 면모는 모순적이지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켰다. 이러한 면은 송대 문인들이 詞의 창작에 열심이었던 면에서도 알 수 있고 필기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歐陽修, 司馬光, 蘇軾, 蘇轍, 陸游 등 문단의 대가들이 한편으로는 '문장'을 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설'의 창작에 종사했던 것이다. 그들은 필기라는 글쓰기를 통해서 文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없었던 삶의 편린, 생각의 단편을 얘기할 수 있었고 생활 속의 웃음, 해학 등을 즐길 수 있었으며 사적인 감정을 토로할 수 있었다. 또한 공식 역사에서 배제되고 은폐되어지는 것들이 필기라는 사적 글쓰기 공간을 통해서 기록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필기를 정통적 역사와, 고문과, 해석에서 벗어난 글로 만든다. 필기 속의 사건은 역사의 누락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정사에서 꺼려지는 내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주류의, 공인된 시각과는 다른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과 진상을 표현할 수 있었다. 정사와 위배되는 사적 필기의 기록은 역사의 주변으로 밀려났었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과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필기라는 문체의 개방성을 보여준다. 또한 필기의 문자와 형식은 규모나 계획 없이 생각을 따라 써 낸 글이기 때문에 일반 고문과 다르다. 비록 송대 고문이 평이하고 자연스러움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생활 속의 무수한 단상과 감정, 흥취는 일정한 편쪽과 치밀한 구조를 요하는 고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다.⁵⁹⁾ 반면 필기는 그들의 일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체였다. 문체적 느슨함(閑), 모든 잡스런 내용까지 담아낼 수 있는(雜), 일관성이 필요없는(散), 소소한 것들까지 모두 기록할 수 있으며(瑣) 짤막하고도 질박한 문체의 필기는 그들의 생활이나 정신적 측면과 꼭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다시 말해 송대 문인들은 이전의 필기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새로운 내용을 담아냈던 것이다.⁶⁰⁾

59) '隨意'는 필기의 가장 큰 특징이지만, 고문에서 '隨意'는 기피해야 하는 것이다. 林紘, 『春覺齋論文』: 循習於法度, 精純於語言, 不可輕著一筆. 蓋古文非可隨意揮灑者也.

60) 피터 볼(Peter K. Bol)은 필기라는 송대에 발달한 장르가 지나는 송대 지성사에서의 의미를 고찰하려 하였다. 필기는 통일성을 결여한 형식 그 자체로서 송대 도학의 理로 대표되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관에 대비되는, 다양성과 실제 경험과 현상의 특수성을 강조한 송대 士

이후 晚明 문인들은 大文보다는 小文을 선호했고 正史를 통해 한 인물의 업적과 절개를 보기 보다는 일상 속의 사소한 사건을 통해 자연스럽고 진솔한 개인을 만나고자 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송대 필기가 애독되었고 특히 소식의 『東坡志林』과 洪邁의 『容齋隨筆』은 만명 소품 작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니⁶¹⁾ 송대 문인들이 필기를 썼던 의도와 자세, 그리고 그 속의 眞情과 諧謔이 만명 소품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參考文獻>

- 謝楚發, 『散文』,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4.
- 陳北祥 著·沈慶吳 譯, 『한문문체론』, 서울: 이화문화사, 1995.
-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概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2.
- 劉葉秋, 『歷代筆記概述』, 北京: 北京出版社, 2003.
- 吳禮權, 『中國筆記小說史』, 上海: 商務印書館, 1997.
- 陶 敏·劉再華, 「筆記小說與筆記研究」, 『文學遺產』, 2003년제2기.
- 程毅中, 「漫談筆記小說及古代小說的分類」, 『古籍整理出版情況簡報』, 2003년제3기.
- 李劍國, 「文言小說的理論研究與基礎研究—關於文言小說研究的幾點看法」, 『文學遺產』, 1999년제2기.
- Peter Bol, "A Literati Miscellany and Sung Intellectual History: The Case of Chang Lei's Ming-tao tsa-chih", *Journal of Sung-Yuan Studies*, vol.25, 1995.
- 永瑤等, 『四庫總目提要』, 中華書局, 1995.
- 沈 括, 『夢溪筆談』,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3.
- 羅大經, 王瑞來點校, 『鶴林玉露』, 北京: 中華書局, 1997.
- 周 密, 吳企明點校, 『癸辛雜識』, 北京: 中華書局, 1997.
- 方 勻, 許沛藻·楊立揚點校, 『泊宅編』, 北京: 中華書局, 1997.

人的 사고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추론하고 있다.(Peter K. Bol, "A Literati Miscellany and Sung Intellectual History: The Case of Chang Lei's Ming-tao tsa-chih", *Journal of Sung-Yuan Studies*, vol.25, 1995.)

61) 朱國禎의 『湧幢小品』은 서문에서 자신의 저작이 洪邁의 『容齋隨筆』을 본받고자 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執筆自韻, 仰視容齋, 欣然有竊附之意焉. 間示一二館師與兒子輩資譚諳, 題曰『希洪昏眊之餘』, ……其曰『小品』, 猶然雜俎遺意." 『東坡志林』의 만명 소품에 대한 영향관계는 拙稿, 『宋人筆記研究—以隨筆雜記爲中心』(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년) 제4장 참조.

洪邁,『容齋隨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8.

安萍,『宋人筆記研究-以隨筆雜記爲中心』,박사학위논문,上海:復旦大學,2005.

<中文提要>

“筆記”是指一切用散文所寫的零星瑣碎的雜錄,這種寫作形式早已就有,但直到宋代纔具有作爲一種獨立文體的意義,並且在數量和質量上都進入了一個全新的階段。但在已往的研究中,筆記寫作一直被忽視,因爲它在傳統目錄學觀念中屬於小說類,被視爲餘暇的閑談,即便是文人自己也不太重視。後人除了關注其資料性的價值以外,常常忽視作爲一種獨特寫作形式的筆記。本文主要探討了“筆記”這一文體本身的問題。在這問題上,本文主要通過其序文來窺探作者的意圖。多數筆記時常提及其旨趣在於樂、笑、娛、戲、喜,這種寫作態度與前人在筆記寫作上要求嚴謹,因而排斥“以文爲戲”不同。宋代筆記作者據自己的經驗和主觀而寫,不管作文的一切規範、習慣、形式,不受主流的價值、理念的影響,更加重視自己的主觀想法。宋人筆記能夠具有這樣的特性,即其中貫徹着私人性,以往的筆記注重其補史功能,而自宋代開始,筆記轉變爲能夠反映個人文化精神的寫作。這就是宋人筆記所具有的意義。

關鍵詞: 宋代筆記, 宋代散文, 文體, 文體論